

“부처님 가르침 되새겨 자비와 평화의 지혜 원력 모아주시길”

박근혜 대통령 봉축메시지

‘봉축법요식’	1면에 이어
---------	--------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사랑도, 지혜도, 행복도, 모두 내안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며 “부처님께서 주신 자비와 평화, 겸손과 화해의 가르침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원력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불교계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발원문도 공동으로 발표했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며 “부처님의 거룩한 뜻과 달리 우리겨레는 70년 세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남과 북이 돌이 아닌 하나가 되기 위해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법등으로 삼고 옹맹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사 법요식과 함께 조선불교도연맹 주관으로 평양 광범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에서도 공동 발원문이 낭독됐다.

이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사부대중을 대표해 부처님 전에 발원을 올렸다. 법요식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한 마음으로 발원문을 낭독하며 “깨달음은 치열한 자기 수행을 통해 얻어질 뿐 아니라 자비의 보살행을 통해서 얻어짐을 믿고 내 이웃의 기쁨은 함께 하고 내 이웃의 아픔은 함께 나누며 살겠다”고 서원했다.

제12회 불자대상 시상식

이와 함께 제12회 불자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현집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에게 상패를 전달하며 불교발전과 불교위상 제고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한편 이웃종교 지도자들도 잇따라 봉축메시지를 발표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광복 70주년이 자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 ‘자비’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울려 퍼져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도 의장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기쁜 마음으로 온 세상의 모든 불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기쁨에 넘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등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만들어 나갑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걸으신 일곱 걸음은, 모든 인류에게 크나큰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이 땅에는 새로운 광명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추었으니,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바른 마음과 바른 노력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축복의 순간을 열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분단으로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살아온 70년의 세월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 되하고자 하는 일심(一心)으로, 서로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종단은 공존(共存)과 상생(相生), 그리고 합심(合心)이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라는 3대 통일 방안을 제시하여, 남과 북이 화합하고 하나 되자는 불교 통일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16일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신 200여 고승 대덕 스님들과 30만에 이르는 불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무차대회를 열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남북이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으며, 지구촌 모든 나라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최근 큰 슬픔에 처해있는 네팔 국민의 슬픔도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들이 어서 빨리 절망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세월호가 남긴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의 목숨과 맞바꾼 ‘안전한 나라’, ‘생명이 우선한 사회’를 향한 작은 한 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향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라시대 의상스님은 ‘한 티끌의 먼지 속에도 천지의 요소가 함께 있고, 짧은 한 생각

이라도 만년의 기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우리 모두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지금 우리의 한 생각은 미래 후손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경쟁으로 생존만을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이기를 기도합니다. 근엄함과 냉정함, 권위와 분노보다는 아픈 가슴을 보듬어주고 축 처진 어깨를 안아줄 수 있는 자애롭고 따뜻한 지도자가 많은 사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마당에는 동자승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오색의 연등은 바람 따라 희망의 불국정토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평화로운 마음과 향기로운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불자님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엔 건강과 행복이 항상하기를 축원드립니다.

■ 봉축시/홍사성 논설위원

공양

이 몸 향불 되어 님을 향기롭게 하고저
이 몸 등불 되어 님의 발밑 밝혀주고저
이 몸 꽃이 되어 님께 자태 보여주고저
이 몸 차가 되어 님의 목마름 적시고저
이 몸 과일 되어 님의 입에 들어가고저
이 몸 밤이 되어 님을 배부르게 하고저.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 집회 공고

종헌 제39조 및 중앙종회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집회일시 _ 불기2559(2015)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 ▶회 기 _ 불기2559(2015)년 6월 22일(월) ~ 26일(금)(5일간)
- ▶집회장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요안건 _
 1. 종헌 개정의 건
 2. 중법 제·개정 의 건
 3. 기타

- ◆의 안 접수 기한 : 6월 15일(월)까지
- ◆정책질의 접수 기한 : 6월 17일(수)까지

※ 의안 및 정책질의는 구비 서류(홈페이지 참조)를 갖추어 위 기한까지 중앙종회 사무처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종회의원 스님께서는 가사장삼을 착용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